

<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

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
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조금 더 하느냐>, <조금 더 못 하느냐>에 따라 ‘승리’도
‘실패’도 좌우된다.

2. 시간 역시, <조금 더 일찍 하느냐, 못 하느냐>에 따라 ‘시간을
지키고, 못 지키는 것’이 좌우된다.

3. 무엇이든지 끝판에 가서는 <조금 더 한 것>으로 이기게 된다. 그
러므로 성자는 “네가 한 것에서 조금 더 하여라.” 하신 것이
다.

4. <최선을 다한 후에 거기에 조금 더 한 것>은 ‘조금’이 아니라
‘많은 비중’을 차지한다.

5. <처음의 조금>은 있는 그대로 ‘조금 한 것의 비중’을 갖는다.

하지만 <최선을 다한 후에 조금 더 한 것>은 ‘엄청난 비중’을 더 한 것이 된다.

6. 할 때 하여라. 성령님이 슬쩍 깨닫게 해 주셨을 때, 그때 해 버려라. 그때가 ‘기회’ 다.

7. 하나님도 성령님도 ‘할 때’ 시간을 내주신다. 그 크신 존재자가 자주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느냐.

8. 할 수만 있으면, 어떻게 하든지 100%, 적극적으로 해 버려라. 그때 해야 ‘기회’도, ‘여건’도 좋다. 다시 하려면, ‘시간’과 ‘여건’이 잘 안 맞는다.

9. <기도하는 것>도, <신앙의 일>도, 그때 해 버려야 된다.

10. 어떤 일을 행할 때가 ‘그 일의 중한 때’다. 그때 집중하고,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으면서 해라.

11. <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‘최고 높은 존재자’로 생각하는 만큼 ‘최고 높은 단계의 차원’에 처해 사는 자다.

12. <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>에 대해 다 배운 것이 아니니, 매일 배워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, ‘무지의 사람’이 되어 전능자와 통하지 못하게 된다.

13. <절대자 하나님>에 대해 배우려면, ‘전지전능, 무소부재, 영원 불변하심’ 뿐만 아니라, ‘그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과 생각들’을 배워야 된다.

우리가 어느 때는 실가닥 같은 마음으로 연약하게 살아서 <우리에게 영원한 기대를 걸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>을 애타게 했고, 어느 때는 전능자 삼위를 잊고 자기중심으로만 행하여 <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>을 상하게 했다. 이러한 ‘삼위의 마음과 생각들’을 깨닫고 배워야 된다.